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연구: 교회의 지원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ristian Perception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Exploring Church Support Measures

송현아 (Hyun-a Song)**

정유경 (Yugyeong J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Korean Christians regard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assessed the current state of church support, and explored directions for future church-based assistance.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d the personal interest and prejudices held by Christians toward adolescent single parents, compared them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interest and prejudices exhibited by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and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236 Protestants nationwide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in June 2025 and analyzed using SPSS 22.0,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d repeated measures ANOV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acquaintances who are single parents or having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with the issue. Second, a distinc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interest in adolescent single parents and prejudice; that is, higher levels of interest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prejudice. Third, Christians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greater interest and less prejudice toward adolescent single parents compared to the levels they observed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Finally, while respondents demonstrated a strong awareness of the church's respon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support, they rated the actual level of current church-based assistance as considerably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church-based support strategies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Christian perceptions, adolescent single parents, church support, Christian welfare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hsong@csu.ac.kr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ykjungwork@naver.com

I. 서론

성경은 기독교인과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눅 10:27). 특별히, 신구약을 관통하며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것, 즉, 디아코니아(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한다(제해중, 2020). 신약을 통해 공생애 중 예수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마 4:23, 마 20:28, 눅 22:25-27),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 교제하며 이들의 삶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제하시는 섬김과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다(마 5:7, 막 2:17). 이러한 복지적 실천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 모두가 지속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손병덕, 2007 ; 양혜원·김희수, 2011 ; 오혜정, 2022). 이에 한국 교회는 사회 봉사부와 같이 교회 내 부서를 통한 이웃 섬김의 실천에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 및 복지사업 위탁 등의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양혜원·김희수, 2011 ; 이준우, 2017). 양혜원과 김희수(2011)는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복지 사역의 형태와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교회 내 부서를 설치하여 진행하는 사역의 경우 저소득 아동 및 독거노인 지원, 노숙자 지원, 의료봉사,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선교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노인과 아동 돌봄 관련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위기청소년이나 청년 지원에 대한 교회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계 지원이나 물품 지원과 같은 단회기적·일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등(조숙인 외, 2023)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은 낮은 실정이며,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박유미, 2022 ; 이준우, 2017). 교회가 위기가정 사역의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등의 지원 사례나 미혼모 양육시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가 봉사와 복지사업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교회의 규모나 재정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교인들의 인식 및 지지의 정도가 교회의 물질적 자원 활용 및 교회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등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미숙, 2000). 따라서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교회와 교인의 관심 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혹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선입견 등이 내재적

원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복지 및 교회 사회복지 개념 및 정체성, 역할이 정립되어 감에 따라 교회의 복지 실천과 사역 방법, 목회 및 선교와의 연계 전략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민선·마은희, 2023 ; 손병덕, 2023 ; 오혜정, 2022).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관련 기독교인의 인식이나 교회 지원 관련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지원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실태를 기반으로 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 및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고,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 방향성 등을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기인식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 모 또는 부라고 정의되고 있다. 한부모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부모를 의미하며,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된다. 특별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추정 수는 약 1만 4천여 가구로서, 전체 한부모 가구(약 22만 7천여 가구)의 약 6.6%로 나타났고, 이 중 70% 정도는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한다(통계청, 2024 ; 이윤정, 2024 재인용).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양부모의 평균 소득(약 416만원)의 60% 수준이며, 한부모 가족의 절반 이상인 약 51.4%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된다. 박미진(2023)은 한부모가 자녀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주거 불안정, 사회적 편견을 포함한 심리 정서적 불안 등 한부모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 한부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경제적 자립 등 일반 청소년기 과업 이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성인 한부모에 비해 더욱 다중적·복합적 위기를 경험한다(백혜정 외, 2012; 이재희, 2022). 변수정(2023)은 만 15세~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을 대상으로 학업, 자립 준비, 경제활동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늘 하루를 생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이나 훈련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움을 밝히며, 청소년 미혼모와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업 지원, 돌봄, 경제적 지원 등 보다 통합적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주희(2023)는 광주지역 청소년 한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낮은 학력과 빈곤으로 인해 정부의 주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했고, 이로 인해 거주지를 자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학업, 임신 및 출산, 양육,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사회에서 더욱 쉽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이영호·박지윤, 2021 ; 최현주·양미연, 2025).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2022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이 청소년 한부모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전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실질적 청소년 한부모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재조명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나(김영정, 2020), 대중매체 노출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임이 가시화되며 이들은 차별 및 배제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지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김가은, 2023).

사회적 인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및 공동체가 상이한 맥락에서 직면한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érez, 2013 ; 이재은, 2022 재인용).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의 생각과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백혜정·김지연(2013)은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낙태 또는 입양을 고려하다가도,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경우 출산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

들 역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 확대가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선택 증가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백혜정·김지연, 2013). 이선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을 통해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단절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사회적 지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유교 사상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한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결함, 무책임한 행동, 일탈이나 비행의 결과로 간주하는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가족의 수치나 가정 해체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김지연 외, 2013 ; 성정현·김희주, 2016). 가족 및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배제, 낙인은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윤정, 2024).

이러한 낙인과 편견의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SmithBattle(2020)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이 이들의 임상적 돌봄을 방해하고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미혼모 대부분이 사회에서 편견 및 차별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취업 현장에서 이를 더욱 체감하는 것이 보고되었다(이혜영, 2013). 김영미와 이화명(2018)은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편견이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화미·신정원·조명선(2024) 역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이 청소년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윤리·도덕적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의 혼외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한부모의 삶을 이상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은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볼 때, 도덕적 엄격성과 죄의 문제,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신앙적 소명 사이에서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Festinger(1957)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 인지 요소가 발생할 때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고 개념화하였고, 이는 심리적 불편함과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화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보았다(최규원·유승호, 2022 재인용). 혹은 기독교인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여 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아직까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음을 선언한다(창 1:26-27).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적 지위, 도덕적 성취, 혹은 가족 구조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여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한부모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도덕적 결함이나 일탈의 표상으로 여겨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품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유교적 가족 윤리와 보수적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종종 도덕적 실패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로 낙인찍히며, 교회 안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조혜정, 2014 ; 최혜림, 2024).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고 선언하며, 죄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죄의 심각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회복이 모든 죄인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 교제하시며(눅 15:11-32, 눅 7:36-50, 눅 19:1-10), 회복과 은혜를 베푸셨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반복적으로 명하셨으며(신 10:18, 사 1:17, 약 1:27),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전반에 걸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섬기셨고, 이웃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가르치셨다(마 22:37-40). 초대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사 직분을 세워 공동체 내의 소외된 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았으며(행 6:1-7), 이는 디아코니아(섬김)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잘 보여준다(손병덕, 2024). 이처럼 교회는 청소년 한부모를 정죄하고 배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수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여야 한다(최혜림, 2024 ; Walker, 2015).

4.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작은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14년에 신설되었고, 제17조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진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5)가 발표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영역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 검정고시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주거 지원 등 공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 외 추가 서비스로 지역별로 특화 사업 운영하며, 관련 지역 복지센터들과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최현주·조성숙, 2024).

그럼에도 청소년 한부모 급여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전달체계 시스템 이원화로 서비스 중복 및 정보 누락, 지역 간 배분의 차이로 인한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 등 청소년 한부모 정책 및 제도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최현주·조성숙, 2024).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협소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부모 청소년 자체보다는 자녀를 위한 양육자 입장 지원에 치우쳐 청소년 개인 삶의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교육 및 상담 지원과 사회 인식 개선 활동도 일회성 수준으로 그치는 등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자립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이 지적된 바 있다(김영정, 2020 ; 은주희·임고운, 2020). 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적 민간 자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한국교회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공적 지원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전인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실태를 기반으로 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응답자 본인의 인식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나 사회의 관심과 편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 없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 교회지원 관련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 또한 탐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기반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회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개신교인을 주요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교단,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위적인 제한은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연구진이 소속된 국내 대표적인 신학교 및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즉, 편의표집 및 눈덩이 표집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3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57.2%)이 남성(42.8%)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50대 이상(42.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혼자(67.8%)가 미혼자(31.8%)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자녀 수는 2명(38.6%)과 무자녀(36.4%)가 주를 이뤘다. 직업은 목회자 및 선교사 등 종교직(22.9%)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 주부,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3%가 장로교 소속이었고, 교회 규모는 3,000명 이상 대형 교회가 28%로 가장 많았다. 신앙 연수는 40년 이상(41.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대다수(90.7%)가 주일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유사한 주제의 인식연구 설문 문항을 검토 및 분석하였고(김지연 외, 2013 ; 주유선 외, 2019),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 관련 분야 연구원 2명, 현장 전문가 1명,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에게 문항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설문 안내에 포함될 것을 권고받아 그렇게 수정하였고, 문항이 너무 많아 피로도도 인한 응답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문항의 수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설문은 크게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직업계열, 출석 교회 교단과 규모(성도 수 기준), 신앙 년수, 주일예배 성수의 정도를 포함하여 9개의 문항으로 구

표 1. 연구 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구 대상	성별	남	101	42.8
		여	135	57.2
	연령	20대 이하	51	21.6
		30-40대	85	36
		50대 이상	100	42.4
	결혼여부	미혼	75	31.8
		기혼	160	67.8
		기타	1	1
	자녀 수	없음	86	36.4
		1명	31	13.1
		2명	91	38.6
		3명 이상	28	11.9
	직업계열	교육(교사, 교수, 교육 관련 종사자 등)	18	7.6
		사회복지-상담	21	8.9
		종교(목회자, 선교사, 교회 직원 등)	54	23
		기업/사무(회사원, 사무직, 경영 등)	24	10.2
자영업/프리랜서		21	8.9	
학생		41	17.4	
주부		27	11.4	
기타		30	12.6	
소속 교회	소속 교단	장로교	213	90.3
		기타	23	9.7
	교회 규모 (성도 수)	100명 미만	43	18.2
		500명 미만	58	24.6
		1,000명 미만	26	11
		3,000명 미만	43	18.2
		3,000명 이상	66	28
	신앙생활 (년)수	10년 미만	7	3
		10년 이상 - 20년 미만	17	7.2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	25.4
		30년 이상 - 40년 미만	55	23.3
		40년 이상	97	41.1
	주일 예배 성수	매주 참석	214	90.7
		매주 참석 안함	22	9.3

성하였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관련 문항은 총 3개로 가족/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지 여부, 청소년 한부모와의 대화 등 직접적 경험 유무, 청소년 한부모 후원 등 간접 지원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다(0=경험없다, 1=있다). 셋째,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은 개인, 교회,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관심도와 편견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총 6문항). 모든 문항은 10점 척도(1~10점)를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의 수준과 편견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회의 지원 여부(0=없다, 1=있다, 2=잘 모르겠다), 지원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인식(1=재정문제, 2=다른 복지사업 우선, 3=목회자 인식부족, 4=성도 인식부족, 5=기타),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 유형 등을 질문하였다. 그 외,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질문과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총 2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주요 변수 및 측정 방법 요약표

구분	변수	측정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대	20대 이하(1), 30-40대(2), 50대 이상(3)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기타(2)
	자녀 수	없음(0), 1명(1), 2명(2), 3명 이상(3)
	직업계열	교육(1), 사회복지/상담(2), 종교(3), 사무/행정(4), 프리랜서(5), 학생(6), 주부(7), 기타(8)
	소속교단	장로교(1), 기타(2)
	교회규모	99명 이하(1), 100-499(2), 500-999(3), 1,000-2,999(4), 3,000명 이상(5)
	신앙(년)수	10년 미만(1), 10-19(2), 20-29(3), 30-39(4), 40년 이상(5)
	주일예배 성수	매주 참석(1), 매주 참석 안함(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가족,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있다(1), 없다(2)
	직·간접 경험 여부	있다(1), 없다(2)
청소년 한부모 인식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 및 편견	전혀 관심/편견이 없다(1) ~ 매우 관심/편견이 있다(10)

교회 역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교회 지원 및 보호수준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10)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있다(1), 없다(2), 잘 모르겠다(3) ※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개방형 응답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 (복수응답)	재정적 한계(1), 다른 복지사업으로 인해(2), 목회자 인식부족(3), 성도인식 부족(4), 기타(5, 직접입력)
	교회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예(1), 아니오(2), 잘 모르겠다(3)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2),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3),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이 있어서(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5), 기타(6, 직접입력)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복수응답)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2), 주거 및 자립 지원(3),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4), 현금지원(5),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6), 정부 및 민간의 다양화 정책 정보 제공(7),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8), 기타(9, 직접 입력)
		교회의 역할 및 방향성(직접 입력)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성별이나 연령대, 결혼 여부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10점 평정척도로 측정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의 분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점으로 측정된 관심과 편견 점수는 ‘낮음’, ‘보통’, ‘높음’의 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고, 각 범주별 빈도와 백분율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 응답자 개인(본인),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 및 편견 수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편견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평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수행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주로 독립되지 않는 한 집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나, 한 집단의 다른 조건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Laerd Statistics, 2026).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이 본인, 교회, 사회라는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

고, 주요 가정인 등분산성은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Greenhouse-Geisser 교정값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및 편견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 한부모 관련 경험

개인의 경험은 인식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험주의 학자인 존 로크와 데이비드 흄은 모든 인식과 지식이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확장해 보면,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인식 또한 이들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의 유무와 양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험적 측면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주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의 존재 여부(간접 경험),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상호작용 경험, 그리고 대면 접촉은 없더라도 후원과 같은 사회적 지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가족이나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족 혹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37%를 차지하였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7명으로 62.3% 정도였다.

표 3. 가족/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89	37.7
없다	147	62.3
합계	236	100

(2)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 경험 대화 여부

청소년 한부모와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전체 응답자 중 80명인 33.9% 가까운 이들이 ‘긍정’ 응답을 하였고, 156명인 66.1%는 ‘부정’ 응답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 경험 대화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80	33.9
없다	156	66.1
합계	236	100

(3) 청소년 한부모와의 간접 지원 경험 여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후원을 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간접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18.2%)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93명(81.8%)이었다.

표 5. 청소년 한부모와의 간접 지원 경험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43	18.2
없다	193	81.8
합계	236	100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전술하였듯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의 정도를 각각 10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인식의 주체에 따라 총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며, 둘째는 응답자가 지각하는 한국교회의 인식 수준, 셋째는 응답자가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응답자'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응답자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관심과 편견의 두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심 수준은 평균 5.15점($SD=2.28$)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표 6>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이 낮은 응답자는 28.4%(67명), 관심이 높은 응답자는 16.5%(39명)로 나타났다. 편견 수준은 평균 4.62점($SD=2.27$)으로 조사된 b 어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관심 수준에 따라 편견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는

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심도와 편견의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12.757, p <.05$). 특히 관심 수준과 편견 인식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관심이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편견을 보인 비율이 54.2%에 달했으나, 관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2.5%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응답자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2(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25(28.4)	29(23.4)	13(54.2)	67(28.4)	12.757* (.013)
	보통	44(50.5)	78(62.9)	8(33.3)	130(55.1)	
	높음	19(21.6)	17(13.7)	3(12.5)	39(16.5)	
	합계	88(100)	124(100)	24(100)	236(100)	
관심	평균(SD)	5.15(2.28)				
편견	평균(SD)	4.62(2.27)				

* $p <.05$; 낮음 1-3점, 보통 4-7점, 높음 8점-10점으로 구분하였음

(2) 응답자가 인식하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한국교회의 관심 수준은 평균 3.88점($SD=1.91$)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3단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3%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교회의 편견 수준은 평균 6.00점($SD=2.22$)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은 교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관심 및 편견 인식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X^2= 32.916, p <.001$). 교회의 관심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심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여 두 변수 간 명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표 7. 한국교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수준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 ² (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22(61.1)	50(36.8)	49(76.6)	121(51.3)	32.916*** (.000)
	보통	10(27.8)	78(57.4)	13(20.3)	101(42.8)	
	높음	4(11.1)	8(5.9)	2(3.1)	14(5.9)	
	합계	36(100.0)	136(100.0)	64(100.0)	236(100.0)	
관심	평균(SD)			3.88(1.91)		
편견	평균(SD)			6.00(2.22)		

*** $p < .001$, ** $p < .01$, * $p < .05$

(3) 응답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관심 수준은 평균 3.92점($SD=1.78$)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3단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92%만이 한국사회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사회의 편견 수준은 평균 6.59점($SD=2.11$)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은 우리사회가 꽤 높은 수준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관심 및 편견 인식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X^2= 17.918$, $p < .01$). 사회의 관심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심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여 두 변수 간 명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표 8. 한국사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 ² (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18(69.2)	46(38.0)	56(62.9)	120(50.8)	17.918** (.001)
	보통	8(30.8)	70(57.9)	29(32.6)	107(45.3)	
	높음	0(0.0)	5(4.1)	4(4.5)	9(3.8)	
	합계	26(100.0)	121(100.0)	89(100.0)	236(100.0)	
관심	평균(SD)			3.92(1.78)		
편견	평균(SD)			6.59(2.11)		

** $p < .01$, * $p < .05$

(4)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과 편견 인식의 정도 차이 검증

본 연구는 관심과 편견의 관계성 검증에 더하여 응답자 본인의 인식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470)=58.188, p<.001$). 이는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관심의 수준이 인식의 주체(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인식 대상별 관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효과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인식 집단	245.172	2	122.586	58.188	.000
오차	990.161	470	2.107		

사후검정(Post-hoc test) 결과, 개인-교회 및 개인-사회 간 관심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나, 교회-사회 간의 관심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본인’의 관심 수준이 ‘교회’나 ‘사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의 시각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관심 수준은 상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 인식 대상별 관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사후검정(Bonferroni) 결과

구분	인식집단(I)	평균(M)	표준편차	비교 인식집단	평균차이	표준편차	신뢰구간 95%
청소년 한부모 관심	개인	5.15	.149	교회	1.229***	.141	.888 ~ 1.57
	교회	3.92	.116	사회	.038	.101	-.206 ~ .282
	사회	3.88	.125	개인	1.267***	.153	.899 ~ 1.635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응답자 ‘본인’의 편견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편견 인식 수준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 또한 인식 주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F(2,470)=120.622, p<.001$).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 간의 차이를 넘어, 기독교인들이 ‘나’와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각각 서로 다른 수준의 편견을 지닌 주체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표 11. 인식 대상별 편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효과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	F	p
인식 집단	485.037	2	242.518	120.622	.000
오차	944.963	470	2.011		

사후검정(Post-hoc test) 결과, 앞서 일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관심 변인과 달리, 편견의 경우 모든 주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편견이 ‘교회’와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가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고, ‘교회’는 ‘사회’보다는 이들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인식 대상별 편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사후검정(Bonferroni) 결과

구분	인식 집단(I)	평균(M)	표준편차	비교 인식 집단	평균차이	표준편차	신뢰구간 95%
청소년	개인	4.62	.148	교회	-1.386***	.142	-1.727~ 1.044
	한부모	6.00	.144	사회	-.589***	.100	-.829~ -.349
편견	사회	6.59	.137	개인	-1.975***	.145	-.2325~ 1.624

*** $p < .001$, ** $p < .01$, * $p < .0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인식의 집단 간 차이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및 편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 및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3.38점($SD=1.74$)으로 조사되어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식 수준을 범주화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결과,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137명)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39.8%(94명), ‘높음’은 2.1%(5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n=236)

구분	구분	빈도	%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낮음(1-3)	137	58.1
	보통(4-6)	94	39.8
	높음(7-10)	5	2.1
	평균(SD)	3.38(1.74)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소속 교회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20명)였다. 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7%(141명)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운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잘 모르겠다) 응답자도 31.8%(75명)에 달했다. 이는 한국교회 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실무적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지원에 대한 성도들의 인지도 또한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표 1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20	8.5
아니오	141	59.7
잘 모르겠다	75	31.8
합계	236	100

(3) 청소년 한부모 관련 교회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세부 내용(오픈형 응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20명(8.5%)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질문하였다. 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교회가 모자원이나 쉼터와 같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기를

돌보는 사역을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혼모를 위한 사역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을 위한 현물과 현금 후원이 많았다.

(4) 교회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에 대한 인식 현황(복수 응답)

교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목회자의 인식이 부족해서’가 81명(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해서’가 그 다음을 이었다(64명, 27.1%).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의 17%(41명), ‘이미 다른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가 27명(11.4%)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교회에 청소년 한부모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교회 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고, ‘교회 자체가 복지사업에 큰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표 15. 교회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회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41	17.4
이미 다른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27	11.4
목회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81	34.3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64	27.1
기타	8	3.4

(5)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회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16>과 같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203명으로 전체 연구 참여자의 86%는 긍정 응답을 한 반면, 21명(8.9%)은 ‘잘 모르겠다’, 12명(5.1%)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응답자가 교회의 지원 역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기독교인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현황(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203	86
아니오	12	5.1
잘 모르겠다	21	8.9
합계	236	100

(6)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분석 결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물어보았을 때, ‘아니오(12명, 5.1%)’ 또는 ‘잘 모르겠다(21명, 8.9%)’라고 응답한 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를 물었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 아래의 <표 17>과 같다.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으로 나타났고, 8명(24.2%)은 ‘우선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이 많다고 생각해서’, 3명(9.1%)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2명(6.1%)은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1명(3.0%)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3.0%)은 ‘기타’로 나타났다.

표 17.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분석 결과(n=33)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2	6.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3	9.1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18	54.5
우선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ex. 장애인, 노인 등)이 많다고 생각해서	8	24.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3.0
기타	1	3.0
합계	33	100

(7)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 (복수 응답)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이 133명(22.0%)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ex. 성경적 상담, 자조집단)’이 131명(21.7%), ‘현금지원(ex.생활비, 자녀 교육비, 법률 자문비 등)’이 72명(11.9%),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67명(11.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ex.검정고시)’ 65명(10.7%), ‘주거 및 자립지원’ 59명(9.8%),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39명(6.4%),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이 37명(6.1%), ‘기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	133	22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	131	21.7
현금지원(ex. 생활비, 자녀 교육비, 법률 자문비 등)	72	11.9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67	11.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	65	10.7
주거 및 자립지원	59	9.8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39	6.4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	37	6.1
기타	2	0.3
합계	605	1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의 개인적 인식뿐 아니라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기독교인들의 한부모 청소년 및 이들의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주요 발견 및 논의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주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가 사역자라는 점이나 대형교회를 다니는 경우

가 많다는 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라는 범주에 20대 초중반의 미혼모까지 포함하여 응답한 결과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가 더 이상 고립된 소수의 예외적 집단이 아님을 시사하며, 이는 최근 공중과 매체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삶을 주요하게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얻은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이에 이웃사랑의 사명을 받은 기독교인과 교회는 다중적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그 가정을 외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긍정적 지지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인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편견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반면, 관심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정보 부재와 낮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 SmithBattle(2020) 및 국내 선행연구(김영미·이화명, 2018 ; 김화미 외, 2024)의 발견과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부재나 낮은 관심이 사회적 거리감을 유발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하여 낙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Allport(1954)의 접촉 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적 교류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수록 이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수정될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편견이 유지 혹은 강화되는 기제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들 중 일부는 범죄의 피해자인 것 등(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 관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경험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높아진 관심이 편견 감소나 실질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지 등의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국내외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편견이나 낙인을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관심과 편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와 교회의 편견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나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도덕적 결함, 무책임한 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인식되거나 일탈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함을 보고한 여러 국내외 연구의 발견과 일치하며(김지연 외, 2013 ; 성정현·김희주, 2016), 기독교 동

체 내에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다소 불편한 주제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일부 뒷받침한다(조혜정, 2014, 최혜림, 2024 ; Ngcobo, 2009 ; Walker, 2015). 공동체의 인식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한 이재무·박인수(2021)의 연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청소년 한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를 고려할 때(이선희 외, 2021 ; 백혜정, 김지연, 2013), 기독교인과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겠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 개인의 인식 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며 흥미로운 부분이다. 즉,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도는 교회나 사회보다 높고, 편견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국 사회나 교회 집단보다 포용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Festinger, 1957 ; 최규원·유승호, 2022 재인용). 그럼에도, 이 발견은 기독교인 개개인이 가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나, 돕고자 하는 의지가 실제 공동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역이나 행동으로 확장 혹은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 수준의 내적 다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인식의 차이는 이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과 지원 현황의 간극으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6%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고, 교회가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가족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으나, 실제 교회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약 58%)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 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도 8.5%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노인이나 아동 복지에는 적극적인 반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박유미(2022)와 이준우(2017) 등의 선행 연구의 발견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지원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인식 부족’이 지목되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이들을 목회적 돌봄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적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회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잠재적 의지를 복지적 실천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수준의 긍정적 인식이 실제 교회 차원의 지원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인식과 실천 간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편의표집으로 인한 표본의 동질성 혹은 표본 크기의 제한으로 집단 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성별이나 연령, 결혼 여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신앙 연수, 사역 경험,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간접적 접촉 경험 등 다른 변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연령과 무관하게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발견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회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지원방안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 21.7%, 현금지원 11.9%, 이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학업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단편적·일시적 지원을 넘어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 돌봄을 교회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자녀 돌봄 및 양육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욕구이다. 이재희(2022)와 조숙인 외(2023)는 청소년 시기 임신과 출산 직후 원가족의 지원 단절과 제도적 공백 시기에 이루어지는 집중적 돌봄 지원이 이후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자립 역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다는 강점을 살려 공간적 인프라와 성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출산 지원, 산모 돌봄, 임시 보육, 아기용품 제공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바인(Vine)센터는 만 24세 이하 미혼모에게 숙식, 의료, 자립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 실천 사례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입소자와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양육 및 자립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박지훈, 2024).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회의 고유한 강점과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김영미·이화명(2018)과 남미애(2013)는 사회적 낙인과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SmithBattle & Phengnum(2022)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32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문헌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수용과 지지체계가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보호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회의 성경적 상담 및 소그룹 기반의 공동체 모임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자책하고 정죄하기보다 재해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최혜림, 2024; Walker, 2015), 이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지지체계의 보호적 기능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60% 수준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 2025), 양육과 학업·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변수정, 2023), 교회는 긴급 생활비 지원, 성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연계, 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을 통

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실제 사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에 주목하고, 교회 내 실천 전담 부서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크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인, 사회, 교회 차원의 인식 현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야 연구와 사역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고립된 소수 집단이 아닌 ‘우리 곁의 이웃’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비확률적 편의표집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및 중대형 교회 소속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심이 높은 층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전체 기독교인의 인식 수준이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응답자 중 교회 사역자를 포함한 종교직 종사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간접적 경험 비율이 일반 기독교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역 현장에서 다양한 취약계층과 접촉 빈도가 높은 사역자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수준이 일반 성도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응답자의 90% 이상이 장로교단에 속하여 교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됨에 따라 측정 신뢰도와 타당도를 엄밀하게 검증함에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문항 척도를 개발·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교단, 교회 규모 등을 고려한 확률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직업군 및 사역 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거나 일반 성도만을 별도로 표집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 큰 표본을 확보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및 교단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항 척도에 대한 개발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 등의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혼

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실태를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의 복지 사역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인과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자립과 회복을 위해 감당해야 할 실천적 역할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명의식 확립과 전문 부서 구축이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나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창조-타락-구속-완성(회복)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디아코니아(Diakonia)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 복지실천 사역 부서를 설치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생명 존중과 성경적 결혼관 등 말씀에 기반한 교육의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돌봄 서비스와 영적 지지 체계의 제공이다. 교회는 예배, 교육, 상담, 식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가빈·황혜원, 2025).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 및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다중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인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위험군 발견 시 조기에 개입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자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교회 지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거점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재정 및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 교회는 대형 교회 혹은 관련 사역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높은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동참할 수 있겠다. 거점 복지 사역부 설치를 통해 전국적인 위기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넘어 교회가 복음 전파와 사회적 돌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가빈·황혜원 (2025).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의 시설 생활 경험 연구: 권리기반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7(2), 147-170.
- 김가은 (2023). 예능 프로그램의 청소년부모 재현과 서사의 균형 찾기: MBN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시즌 1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553-565.
- 김미숙 (2000).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 59-90.
- 김민선·마은희 (2023).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기독교 노인과 비기독교 노인 비교 연구.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5(1), 1-22.
- 김영미·이화명 (2018).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8(7), 153-164.
- 김영정 (2020).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69-109.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연구보고 13-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화미·신정원·조명선 (2024). 한국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8(3), 385-397.
- 김혜영 (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 7-41.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박미진 (2023).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연구 - 정책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0(3), 163-198.
- 박유미 (2022). 구약에 나타난 혼외 자녀 연구를 통한 교회의 포용성 넓히기. **구약논단**, 28(2), 238-268.
- 박주희 (2023).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광주지역 거주자의 주거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1), 103-139.
- 박지훈 (2024). “청소년 미혼모 위한 보금 자리... 생명의 소중함 되새긴다.” 국민일보, 2024.09.0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5190552>
- 백혜정·김지연 (2013).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시 상황과 양육태도 및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4), 87-117.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s://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 변수정 (202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보건복지포럼**, 319, 59-74.
- 성정현·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손병덕 (2007). 지역사회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역할 연구. **총신대논총**, 27, 367-383.
- 손병덕 (2023). 1인 가구 기독교인의 정신건강 실태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5(2), 40-55.
- 손병덕 (2024). 한국교회의 이웃 사랑 실천과 사회적 책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6(2), 101-116.
- 양혜원·김희수 (2011).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및 발전적 역할 모색. **신앙과 학문**, 16(3), 173-209.
-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도자료(검색일 2024.11.14.).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오혜정 (2022). 기독교사회복지 및 교회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 학술연구 동향: 2003년부터 2022년 9월 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42, 607-643.
- 은주희·임고운 (2020).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131-159.
- 이선희·김수지·서해인 (2021).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2), 1-23.
- 이영호·박지윤 (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13-132.
- 이윤정 (2024).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4(3), 226-251.
- 이재무·박인수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2), 111-135.
- 이재은 (2022).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7(1), 33-58.
- 이재희 (2022).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 이준우 (2017). 공공신학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성격과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333-366.

- 제해중 (2020). 교회의 5대 본질적 기능 재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교회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233-246.
- 조숙인·배윤진·이정아·송경희·김희수 (2023).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조혜정 (2014). 미혼모와 기독교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내외통제성의 비교. **기독교 교육정보**, 43, 295-318.
- 주유선·김기태·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연구보고서(수시) 201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규원·유승호 (2022).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에 대한 연구 - LCK T1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6, 71-144.
- 최현주·양미연 (2025). 청소년 한부모 관련 학술연구 동향 분석: 국내 등재지(KCI)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4(1), 145-175.
- 최현주·조성숙 (2024).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6(4), 187-209.
- 최혜림 (2024). 미혼모 가정을 포용하는 ‘하나님 공동체-가족’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하갈과 이스마엘, 마리아와 예수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목회상담학회**, 43, 319-347.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Addison-Wesley.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4). *Pregnancy Resulting from Sexual Violence*.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erd Statistics. (2026). *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in SPSS Statistics*. Lund Research Ltd. <https://statistics.laerd.com/spss-tutorials/one-way-anova-repeated-measures-using-spss-statistics.php>
- Ngcobo, B. F. (2009).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unwed teenage mothers in faith communities: A qualitative study*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KwaZulu-Natal). University of KwaZulu-Natal ResearchSpace.
- Pérez, L. A. (2013). Unveiling social awareness through literacy practices in an EFL class. *Colombian Applied Linguistics Journal*, 15(2), 184-204.
- SmithBattle, L. (2020). Walking on eggshells: An update on the stigmatizing of teen mother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45(6), 322-327.
- SmithBattle, L., & Phengnum, W. (2022).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research on teen mothers' resilienc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5(1), 161-175.

Walker, J. E. II. (2015). *A how-to guide to single-parent ministry: An inside look to the single-parent world in the Christian community* [Senior thesis, Liberty University]. Scholars Crossing.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연구: 교회의 지원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ristian Perception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Exploring Church Support Measures

송현아 (총신대학교)

정유경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교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가지는 '본인의 관심과 편견'뿐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관심과 편견'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개신교인 236명이며, 2025년 6월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인 중 한부모가 있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관계가 파악되었다. 즉, 관심이 높을수록 편견이 낮았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나 사회가 보이는 관심'보다 높으며, 편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관련한 '교회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실제 교회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인 인식조사, 청소년 한부모, 교회지원, 기독교 사회복지